

동명청년창작소, 청년 창업 협업 모델 ‘자리매김’

‘커머스빌딩’ 총 49명 배출…폐업을 6% 등 실효성 입증
평균 매출 성장률 206%…교육·공간·생태계 지원 성과

동명청년창작소가 ‘대학·자자체·민간’이 함께 만드는 청년 창업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명청년창작소는 지난 2024년부터 커머스 창업교육 프로그램 ‘커머스빌딩’을 운영해 현재까지 5기, 총 49명의 청년 창업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94%가 폐업 없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창업 1년 차 기준 평균 매출 성장률은 20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명청년창작소를 거쳐 간 우수 사례 기업도 10여 곳에 이른다. IT 개발 기업 ‘라인소프트’는 연 매출 1200만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했고,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데더굿 커피’는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와의 협업을

앞두고 있다. 한우·육가공업체 ‘피그밀’은 전문가 멘토단의 1대 1 코칭을 통해 브랜드를 전면 재설계한 뒤 매출 2억원을 돌파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커머스빌딩’은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브랜드 설계, 유통,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12회차(약 2개월) 과정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멘토단이 참여자의 실제 사업 아이템을 분석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전략과 유통 채널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수료한 커머스빌딩 5기 기업들은 조선대학교 RISE 사업단과 협력해 ‘제11회 창업박람회 in 광주’에 참가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동명청년창작소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청년 창업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은 창업 네트워킹 특강 ‘창작소로 수머들다’ 모습.

공간 지원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무료 사무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는 입주율 90.3%를 기록 중으로, 다양한 업종의 청년 창업가들

이 입주해 교류하며 성장하고 있다. 특히 건강 디지털 브랜드 ‘프루티’는 코워킹 스페이스 내 촬영 스튜디오와 브랜드 컨설팅을 적극 활용에 제품 경쟁력

을 높였고, 그 결과 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 입점에 성공하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동명청년창작소는 교육과 공간 지원을

넘어 ‘협업이 일상인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창업 네트워킹 특강 ‘창작소로 수머들다’에는 올해 총 113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는 4.72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선배 창업가들이 실전 노하우와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 간 협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네트워킹 중심형 성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동명청년창작소는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일자리센터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업 멘토링, 실습, 캠프 등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동구 관계자는 “동명청년창작소는 단순한 창업 공간을 넘어 청년이 머물며 성장하고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이라며 “올해는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을 통해 동구에서 시작된 청년 창업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중흥그룹, 헌혈 수급난 극복 캠페인

“헌혈 참여하는 젊은층 비율 많아지길” 밝혀

중흥그룹은 헌혈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흥그룹 임직원들은 지난 19일 광주 북구 중흥건설 본사 앞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수급난을 도왔다.
지난 2022년부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이상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중흥그룹 계열 중흥건설, 중흥토건 등 소속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또한 긴급 수급이 필요할 시 언제든지 참가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중흥건설을 비롯해 중흥그룹 계열사 임직원들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중흥건설 소속 헌혈 참여자는 “헌혈에 참여하는 젊은 층의 비율이 많이 줄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혈액수급이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중흥그룹은 헌혈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동절기에 접어들면 헌혈 참여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움을 준 중흥그룹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나주시, 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나주시가 지역 사회복지기업과 협력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돌봄 문화 확산에 나서며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단법인 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지역사회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는 나주시 사회적기업 1호로 매년 기증·수집된 중고 PC를 정비해 농어민과 취약계층에 무상 보급하는 등 지역 정보 격차 해소에 꾸준히



나주시는 최근 (사) 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기여해 왔다.
이번 지정에 따라 협회는 치매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비롯해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배려 실천, 치매 취약계층

치매 인식 개선·돌봄 강화 등
민관 협력 사회문화 조성 앞장

을 대상으로 한 중고 PC 무상 보급과 정보화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극복에 힘을 계획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면서 지역 주민의 치매 인식 개선은 물론 치매 환자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예방 교육과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등록 관리, 가족 지원 등 통합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협약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 맞손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송형길)은 20일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사무총장 오영환)와 전남 시니어의 안정적인 금융생활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금융 역량 강화와 금융피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증장년층 및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금융교육,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자산관리 교육, 금융사기 및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 양 기관 수행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및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진흥원 송형길 원장은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소외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금융 교육을 추진하고, 시니어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비문해자 대상 디지털·생물문해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진흥원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교육 대상을 시니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를 참고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송형길·사진 왼쪽)은 20일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사무총장 오영환)와 전남 시니어의 안정된 금융생활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같은센터. 문의 062-374-2818.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염성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 지원. 062-369-4009.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

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후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운세 (음력 12월 3일)

쥐
48년생 다른 문서에 한 번 팔지 마라
60년생 거레에 한 발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라
72년생 문서에 중요한 변화가 올 것
84년생 경쟁할 일이 생기니 귀하게 유리
96년생 남이 뭐라 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자
 토끼
51년생 현재 위치를 알고 주체념하지 하라
63년생 꼬임에 속아 손해 보는 수가 없는 날
75년생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질을 높일 것
87년생 잘한 일에도 얻어지는 게 없는 날
99년생 투기성 있는 일에 손대지 마라
 닭
54년생 오랜만에 기분좋은 일이 생긴다
66년생 그 길은 옳지 않으니 빨리 바꾸라
78년생 금전 확보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날
90년생 전혀 도움이 안되니 벗어나야만 한다
 돼지
57년생 당장 처리할 시급한 문서가 생긴다
69년생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을 것
81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물러서라
93년생 남자에게 이용 당할 수도 있다

소
49년생 돈소문으로 깡뭇 놀랄 일이 생긴다
61년생 원거리 출장·여행은 금물이니 삼가라
73년생 막강한 실사 생기고 기쁨이 있는 날
85년생 재능이 있으니 늦게라도 이뤄진다
97년생 금전 이익 없고 인간관계 허탈해진다
 호랑이
52년생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 삼가라
64년생 중요한 결정은 내일 하라
76년생 행사를 주도하면 따르는 사람이 많다
88년생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양
55년생 짐을 친 채 오르막길 오름과 같은 날
67년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날
79년생 헛소문이 사실로 변할 수 있다
91년생 어차피 어긋나게 돼 있다
 개
58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70년생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82년생 고집은 고집으로 망하는 법이다
94년생 괜한 일로 오해가 시작된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주변 말에 동요되지 말고 기다려라
62년생 두개의 문서 거래 중 하나는 성공한다
74년생 재물이 따르고 일이 순조롭다
86년생 조건이 좋아도 금전 손실이 일어난다
98년생 친구 간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날 것
 뱀
53년생 복잡한 관계들이 보인다
65년생 주변 환경이 갑자기 좋아질 수 있다
77년생 부동산 투자 좋은 기회가 온다
89년생 원하는 것 중 작은 것은 이뤄진다
 원숭이
56년생 한 번쯤 멀리 여행을 떠나보라
68년생 이상 징후가 보이니 종합 점검하라
80년생 아랫사람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라
92년생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리면 통쾌해 된다
 돼지
59년생 사소한 행동이 주변을 난처하게 한다
71년생 믿는 도기에 발동 켜이니 조심하라
83년생 잃은 것을 다시 찾고 기쁨이 있는 날
95년생 부진이 해소되고 기쁨이 올 때